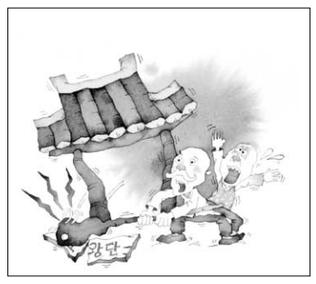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6> 파타야(破墮也) 선사

할로써 죽이고 방으로써 살린다고 했다. 무엇을 죽이는가? 물론 번뇌망상이다. 무엇을 살리는가? 반야지혜이다.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려야 한다.

물론 죽이는 게 살리는 것이 되고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임제선사는 할로써 죽일 것을 죽였고 덕산선사는 몽둥이로 살릴 것을 살렸다.

선가에는 할과 방이 별명 정도가 아니라 '두들겨 패는 것'이 진짜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 파조타(破竈墮)선사가 그 주인공이다. '조왕신을 패서 쓰러뜨리다'라는 의미인데 가운데 '조(竈)'자를 빼면 파타(破墮)가 된다. 어디 조왕신 뿐이겠는가? 일체의 모든 상(相)을 다 부수어버린다. 방과 할을 동시에 자유자재로 구사한 경우라 하겠다.



파조타 선사가 숭악(崇嶽)에 있을 때다. 산중턱에 재각(齋閣)이 있었는데 영험이 많다고 주변은 물론 멀리는 사라졌다. 이 광경을 문 밖에서 보고 있던? 시자들이 말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좌우에서 모셔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조왕신에게 무슨 법을 설하셨길래 해탈을 얻었습니까?"

"무슨 별다른 법이 있겠느냐? 다만 그에게 '진흙과 기왓장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일 뿐인데 그 영험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라고 했을 뿐이다."

이는 연기법을 조왕신의 근기에 맞게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시자들은 영험담으로만 듣고서 히히덕거릴 뿐이었다. 보다 못한 선사가 대갈일성을 하였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법문을 듣고도 왜 절을 하지 않는거야."

고함소리에 놀라 엉거주춤 일어나 할 수 없이 절을 하는데 선사가 주장자로 사정없이 머리통을 내리치면서 할을 했다.

"파야(破也)! 타야(墮也)!(깨졌다! 무너졌다!)"

주장자와 할로 번뇌망상 사정없이 날려버린 파조타 선사 '두들겨 패다'란 이름 얻어

까지 소문이 퍼졌다. 당연히 공양물을 올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재물을 올리기 위하여 소 돼지 등 산 목숨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선사는 가축들이 도살당하면서 내는 울음소리를 듣다못해 어느 날 시자 몇 명을 데리고 주장자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왕단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대는 본래 진흙과 기왓장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일 뿐인데 영험은 무슨 영험이며, 또 그 영험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는 말이 끝나자마자 다짜고짜 주장자로 두들겨 패면서 할을 했다.

"파야(破也)! 타야(墮也)!(깨졌다! 무너졌다!)"

조왕단이 바로 무너지면서 푸른 옷에 높은 관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다.

"내가 이 재각의 조왕신인데 이제 선사의 무상법문을 듣고 해탈을 얻었습니다."

말하고 나서 조왕신은 두 번 절을 하고 이 한마디에 모두가 그 자리에서 깨침을 얻었다. 머리에 혹 몇 개 돋은 게 대수랴. 파조타선사가 파타야 선사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다. 조왕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안목까지 열어준 까닭이다.

'파야 타야'를 줄이면 '파타야'가 된다. 동남아 불교성지 순례를 가면 십중팔구 들리는 관광지가 파타야(Pattaya)이다. 관광(觀光)은 풍광뿐만 지혜의 빛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우연의 일치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겠지만 파타야는 번뇌망상을 부수어 날려버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봐도 좋을 것 같다.

파타야에서 놀이에만 빠지지 않고 파조타 선사를 떠올릴 수 있으면 조계종 종도로서의 기본자격은 갖추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파조타 선사가 생각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봐야 할 인연있는 이름자리라고 하겠다. 하긴 처처(處處)가 법당이라고 했으니까.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떠오르는 생각·감정 알아차리세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일 관법명상' 현장

명상학과 황용식 교수 지도

"온 주위를 모아 숨이 코로 들어갈 때, 그 언저리와 어떻게 접촉하는지 관찰하세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자, 이제 숨이 코 밖으로 나갑니다.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나지막이 흐르는 목소리가 수련생의 마음을 파고든다. '느껴 알아차리기.' 호흡관찰이 진행된다. 숨결이 거친지 섬세한지, 따스한지 서늘한지 날숨과 들숨이 명상의 밀도를 높인다.

2월 12일, '1일 관법명상' 수련회가 열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법당. 매월 둘째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수련회를 지도하는 황용식 교수(54 · 명상학과)가 온몸에 대한 감각 관찰이 서툰 관법명상 입문자 7명에게 호흡관을 안내했다.

'관법(觀法)명상.' 평정심으로 호흡과 감각의 관찰을 중시하는 인도 고엔까(Goenka) 계통의 위빠사나를 기초로 하는 명상법이다. 행법은 호흡관을 방편으로 하고, 수행원리는 다분히 대승관법(大乘觀法)과 닮았다. 그러다보니 생소한 관법명상으로 수련생들의 낯빛이 붉어졌다. 팔다리가 제 자리를 못 찾고, 호흡관찰을 놓치기 일쑤다. 잠시후, 황 교수가 말 한마디를 툭 던졌다.

"느껴 알아차리세요."

오전 10시부터 50분씩 이어진 명상이 끝나자,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1:1' 개별 인터뷰가 진행됐다. 명상체험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해내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다. 스승과 제자가 허심탄회하게 묻고 답하는 '입실지도'다.

수련생 정승혜씨(39 · 서울 독산동)와 함께 따라가 황 교수와 마주 앉았다.

"호흡관찰은 잘 되나요?"

"얕으면 얕은 대로, 깊으면 깊은 대로 관찰돼요. 마음을 편하게 하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는군요."

"바로 그것이 중요해요. 주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보면 되는 거죠."

일대일 인터뷰 통해 명상체험 언어로 표출
근본 성품 깨워 드러내는 것이 포인트
일상서 마음 챙기면 매순간이 명상

'1:1' 개별 인터뷰는 수련생이 명상수련에서 겪는 고민을 털어놓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부부 문제, 대인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속살까지도 제한 없이 오갔다. 일상 속에서도 명상을 통해 실질적인 마음 씀씀이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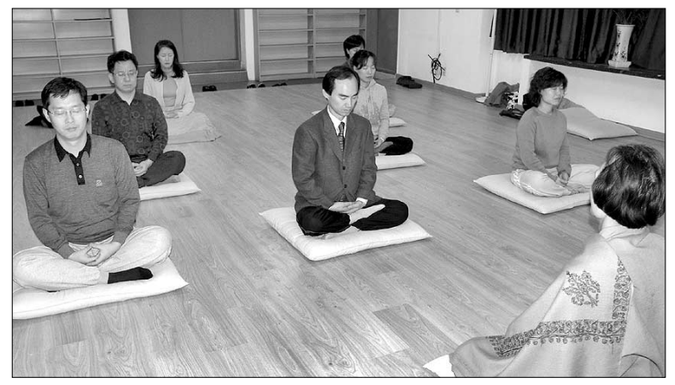
개별 인터뷰가 마무리 되자, 곧장 황 교수의 담화(설법)가 진행됐다.

"관법명상은 일상에서도 본래 활짝 깨인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각이 중요합니다. 근본 성품을 깨워 드러내는 것이 관법명상의 핵심인 겁니다. 자비와 지혜로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을 제어한다면, 모든 일상사가 그대로 명상이 됩니다."

감각 등을 매개로 마음이 자신을 알고 보려는 것이 관법명상이란 황 교수의 설명. 몸과 마음으로 이뤄진 자신을 하나하나 챙길 것을 잊지 말라고 수련생들에게 당부했다. 걷되 마음을 챙기면 걷기 명상이 되고, 청소하되 빗자루와 쓰레기와 일체가 되는 마음을 내면 청소명상이 된다는 이치이다.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수련생 서현령씨(44 · 서울 삼전동)는 "무거운 지게를 메고 가다 잠시 막대기를 걸쳐놓고 쉬는 느낌을 받았다"며 "호흡이 잘 느껴지고 감정의 흐름을 잘 짚어낼 수 있어 내면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02)890-2834 www.sgsb.ac.kr

글 · 사진=김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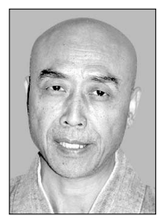


관법명상 수련생들이 황용식 교수의 지도로 '호흡관찰' 수행을 하고 있다.

황용식 교수(오른쪽)와 수련생이 '1:1' 개별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본래부터 밝아 있는데 왜 못 보는가?"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 '선가귀감' 강설



"선가귀감은 불조(佛祖)의 골수만을 담아 선의 고갱이를 짚어낸 선어록입니다. 본래부터 밝아 있는 불성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못 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성품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선원이전을 계기로 2월16일 '<선가귀감> 강설'을 시작한 서울 돈암동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사진)은 <선가귀감>이 수행자들에게 선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단언했다.

"우리가 불교를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중생심에서 아는 것일 뿐입니다. 중생의 알음알이로 부처의 깨달음을 가늠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부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선가귀감은 놔버릴 '그 무엇'을 드러내주고, 자각케 해줍니다."

'본래불성 드러내기'와 '놓아버리기'. <선가귀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무엇을 놔버리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지, <선가귀감>은 그 대답을 '거울' 같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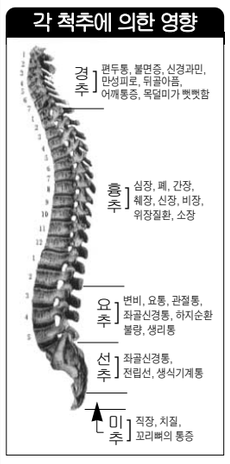
"선가귀감은 잘 · 잘못 모두를 비춰냅니다. 겸손과 경책의 거울을 내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비추기만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아상을 베어버릴 '법의 칼날'도 숨겨놓고 있습니다. 역대 조사들의 간절한 지침서인 선가귀감을 의지해 그 깊은 뜻을 다시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귀중한 일입니다."

줄 · 재가자 구분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번 강설은 5월18일까지 매주 목 오후 7시에 열리며 자유로운 문답시간도 이어진다. (02)953-5291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특강 배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6학년도 봄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모집과정

과정명	분 야	세 부 과 정 명
교양교육	불교연구	불교란 무엇인가, 참선수행, 경전연구(능가경), 불교한문(금강경), 불교상담사
	건강	선요가(초급, 중급), 선무도(고급,사범,연구반), 선요가초급, 중급(야간)
	문화 · 예술	초급한문(명심보감), 사군자, 문인화, 서예, 전통민화실기 Ⅰ, Ⅱ, 전통생활자수, 고전(전통)무용, 한지화(일반,전문), 불교정통꽃꽂이(초급,중급)
	명리 · 풍수	명리학(초급,중급 연구반)(주간,야간), 명리학전문(사주풀이반 실전과통변반) 기문정명학(초급, 중급, 연구), 성명학(초급,전문), 인상과 개운(주간, 야간) 생활풍수, 벽계풍수(야간),풍수지리평가사기초반, 풍수지리평가사, 현공기통수인테리어풍수사(야간)
전문교육	불교전문교육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중교학적 이해, 불교와 정전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 과정 수료자는 동국대 총장명의의 불교학 법사 인증서를 수여함
부동산과정	경제	부동산재테크, 부동산 경매
특별교육	문화,예술	파티테이블 & 플라워
		POP(손글씨광고디자인) 창업반
		표현예술치료(1단계 ~6단계)
	건강	명상기치유사
	생활	커피전문가
자격증과정	아동미술실기지도사	※과정수료자는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아동미술심리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 협의회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 – 아동미술심리지도사과정: 전문대학 졸업이상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한문지도사, 주산활용교육사, 가요전문지도사 글쓰기지도사: 고졸이상
	한문지도사	
	주산활용교육사	
	글쓰기지도사	
	가요전문지도사	
	색채심리분석사	과정수료자는 민간자격협회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심리상담사(2급)	과정수료자는 한국상담연구원 주관 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응시자격 부여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교양과목	가족치료의이론과실제, 식생활과건강, 한문, 일본어, 중국어, 불교학의 이해, 인간과윤리, 경영학개론, 생활일본어, 영어, 교육과사회, 생활법률, 북한정치와 사회, 한국정치의이해, 무역학의이해, 의복과현대사회, 행정학개론, 생활풍수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단,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등 일부과정제외)
원서접수 2006년 2월 1일(수) ~ 2월 28일(화)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학술관 1층)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모집시기는 행정지원실로 문의 바람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1매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TEL 02) 2260 - 3728~9 / FAX 02) 2260 - 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ac.kr/~soedu/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해조음 刊 원통 저 신국판 390쪽

미륵
금강경 속에 담긴 사람수명 팔만사천세의 의미
아함경에는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가 되면 미륵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미륵이 오시면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의 시대가 된다. 이러한 믿기지 못할 내용이 금강경 사상이다.
금강경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 후 오백세(말법시대)를 위한 경이다.
2. 이 경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그를 천대 멸시, 배척 할 것이다.
3. 이 경을 공부해서 얻어질 공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어지러워 미쳐버릴 정도이다.
4. 수명에 대한 상(相)을 가진 사람은 이 경을 이해 못한다.
5. 법신과 세계와 중생은 본래 하나로 합한 모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내용은 사람 몸이 금강불괴신이 되어 팔만사천세를 사는 진해탈을 암시하고 있다.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보급 총판 운주사 02) 3672-7181 ~ 5 / 010-3699-9120